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311호 [루계 제25820호] 주제 106(2017)년 11월 7일 (화요일)

사설

겨울철 물고기 잡이 전투에서 승전포성을 빛내여 나가자!

동해어장에서 본격적인 겨울철 물고기잡이전투가 시작되었다.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기세충천하여 물고기잡이전투에 펼쳐나선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들에게는 행복의 웃음을 더해주고 저들에게는 무서운 칠추를 안겨야 한다.

겨울철 물고기 잡이 는 네 간

수산부문에서 본격적인 의의를 가

지는 중요한 전투이다. 수산부문에서

는 당 중앙위원회 정신을 높이

발들고 해전철 투쟁과 함께 경축

하기 위해 투쟁에 나가는 체제

인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고조

시키고 있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듣고 기념으로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할 물라는 열의로 세차게 뛰고

있다.

거센 파도를 헤아르며 집중적인

어로전을 힘차게 벌리고 있는 어로공

들의 령도정신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발들고 해전철 투쟁과 함께 경축

하기 위해 투쟁에 나가는 체제

인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고조

시키고 있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에 어로전

사들의 투쟁기적으로 결사전을 풀이

하며 당면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안주시에서 련일 성황리에 진행

【안주 1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반드시 이룩하고 아말 천안군민의 평남땅에 울려퍼지는 사회주의전 양을 일으켜 나갈 정안남도인민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판정을 위 불굴의 신념과 역적불변의 의지를 높 진가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 한 두정에서 영웅적기개를 떨어지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무한한 신심과 은 사랑에 충직형상으로 감명깊게 절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있다.

쳐보이었다.

우리 두정에서 영웅적기개를 떨어지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무한한 신심과 은 사랑에 충직형상으로 감명깊게 절

달불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

공연은 계속된다.

우리 당 사랑문화전선의 계일기수들이 펼치는 횡포한 공연을 보기 위해 북장, 순원, 득장, 덕천, 남흥, 정원 등 대공업지구와 협동지구들에서 오는 근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로 공연장소는 초반원을 이루고 있으며 관람열기는 날을 따라 고조되고 있다.

공연에서 출연자들은 경음악과 노래연곡 『당이여 그대 있기에』, 남성3종창과 남성합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가무 『보란듯이』, 내성중창과 남성합창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를 비롯한 다채로운 통복음을 통하여 당시에 풍물같이 풍차질풀과의 유정정신으로 사회주의의 위엄의 최후 승리를



장자강반의 풍치를 가꾸어가는 보람

강계 외장재 공장에서

동시기였다.

그가 막사진출업을 마칠 앞둔 어느날 학부의 한 일꾼이 대학에 남아 나온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어떤가고 물어적이 있었다.

그때 안원동무는 혼연히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고향땅과 동떨어진 인생의 성장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고향의 자랑인 장자강의 물이었을 언제 어려워도 손색이 없는 『명희』로 만들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때 인원동무는 이미 이복체로

놓은 창조동무가 가지고 만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신선플에 더욱 조이기보다는 허우사진의 길에 나섰다.

안원동무는 치질풀 모르는 일

정으로 우여 쇠의 세로운 바닥

시공방법을 완성하여 도인의 중

요전설대상들에게 적극 도입하였

으며 공장자체의 힘으로 새 기와

정성공정도를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얼마나 아름답고 청색원인들

의 거룩한 자작나무가 드넓게

세워져 우리 고향, 우리 가

사는 거리를 더 밝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이 길과 보람을

어디에 비기겠소.』

본사기자 김경일

매가 많았지만 언제나 마음과 지혜를 험하게 갖춘 종업원들, 스스로 도로관

리친이 되어 남편의 사업을 목

목히 도와준 안해 리정미 등무...』

그 뜨거운 마음들에 매번들려

안원동무는 크게 단위를 개설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있다.

달불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

공연은 계속된다.

주민들이 자랑하는 보배 공장

회령화학 일용품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오늘날 시기 때마는 사색과 편지를 통해 인민 생활에 질질 헤매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 뜨거운 마음들은 회령화학 일용품 공장이다.

최근년간 이 공장에서는 파

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지방에 혼란 험로로 어려가지

인민소비품 생산을 정상화하고

공장공장이다.

그의 뜨거운

인민의 일상 생활을

회령화학 일용품 공장은 회령화학 일용품 공장에서 빛나고 있다.

그날 일할

나이가 어

지난 7월 어느 날이었다.

짙은 밤 불꽃에는 생산진 류가 벌어지고 있는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장 김성일 풍물은 차질작업반의 3년전의 그날을 소중히 추억하고 있다.

그날 일할

나이가 어

지난 7월 35주년 기대풍으로 일한 김순남 풍물은 물들여 미련한 판례구들을 그에게 넘겨주며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이 가슴후

기쁨처럼

본사기자 김경일

매가 많았지만 언제나 마음과 지혜를 험하게 갖춘 종업원들, 스스로 도로관

리친이 되어 남편의 사업을 목

목히 도와준 안해 리정미 등무...』

그 뜨거운 마음들에 매번들려

안원동무는 크게 단위를 개설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있다.

달불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

공연은 계속된다.

그날 일할

나이가 어

지난 7월 어느 날이었다.

짙은 밤 불꽃에는 생산진 류가 벌어지고 있는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장 김성일 풍물은 차질작업반의 3년전의 그날을 소중히 추억하고 있다.

그날 일할

나이가 어

지난 7월 35주년 기대풍으로 일한 김순남 풍물은 물들여 미련한 판례구들을 그에게 넘겨주며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이 가슴후

기쁨처럼

본사기자 김경일

매가 많았지만 언제나 마음과 지혜를 험하게 갖춘 종업원들, 스스로 도로관

리친이 되어 남편의 사업을 목

목히 도와준 안해 리정미 등무...』

그 뜨거운 마음들에 매번들려

안원동무는 크게 단위를 개설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있다.

달불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

공연은 계속된다.

그날 일할

나이가 어

지난 7월 어느 날이었다.

짙은 밤 불꽃에는 생산진 류가 벌어지고 있는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장 김성일 풍물은 차질작업반의 3년전의 그날을 소중히 추억하고 있다.

그날 일할

나이가 어

지난 7월 35주년 기대풍으로 일한 김순남 풍물은 물들여 미련한 판례구들을 그에게 넘겨주며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이 가슴후

기쁨처럼

본사기자 김경일

매가 많았지만 언제나 마음과 지혜를 험하게 갖춘 종업원들, 스스로 도로관

리친이 되어 남편의 사업을 목

목히 도와준 안해 리정미 등무...』

그 뜨거운 마음들에 매번들려

안원동무는 크게 단위를 개설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있다.

달불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

공연은 계속된다.

그날 일할

나이가 어

지난 7월 어느 날이었다.

짙은 밤 불꽃에는 생산진 류가 벌어지고 있는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장 김성일 풍물은 차질작업반의 3년전의 그날을 소중히 추억하고 있다.

그날 일할

나이가 어

지난 7월 35주년 기대풍으로 일한 김순남 풍물은 물들여 미련한 판례구들을 그에게 넘겨주며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이 가슴후

기쁨처럼

본사기자 김경일

매가 많았지만 언제나 마음과 지혜를 험하게 갖춘 종업원들, 스스로 도로관

리친이 되어 남편의 사업을 목

목히 도와준 안해 리정미 등무...』

그 뜨거운 마음들에 매번들려

안원동무는 크게 단위를 개설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있다.

달불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

공연은 계속된다.

그날 일할

나이가 어

지난 7월 어느 날이었다.

짙은 밤 불꽃에는 생산진 류가 벌어지고 있는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장 김성일 풍물은 차질작업반의 3년전의 그날을 소중히 추억하고 있다.

그날 일할

나이가 어

지난 7월 35주년 기대풍으로 일한 김순남 풍물은 물들여 미련한 판례구들을 그에게 넘겨주며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이 가슴후

기쁨처럼

본사기자 김경일

매가 많았지만 언제나 마음과 지혜를 험하게 갖춘 종업원들, 스스로 도로관

리친이 되어 남편의 사업을 목

목히 도와준 안해 리정미 등무...』

그 뜨거운 마음들에 매번들려

안원동무는 크게 단위를 개설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있다.

달불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

공연은 계속된다.

그날 일할

나이가 어

지난 7월 어느 날이었다.

짙은 밤 불꽃에는 생산진 류가 벌어지고 있는 작업현장을 돌아보면 직장장 김성일 풍물은 차질작업반의 3년전의 그날을 소중히 추억하고 있다.

자멸을 재촉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소동

정상적인 사고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미치광이 무리, 과외의 살육범들에 모르는 미치광이 무리, 그리고 전쟁에 이끌어 난 미국이 이 **북핵위협**에 대해 데려온 그에 대한 비판하는 구실밖에 우리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도수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다.

얼마전 트럼프는 자신들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 하기 위해 **《완전히 준비》** 되어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 알았던 그에게 **《큰 충격을 받을것》**이라고 나방질하였다.

지금 트럼프당은 **《북핵문제를 키어야 해결》** 하겠다고 고이내면서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 공장에 날왕적으로 메달리고 있다. 미제호전 팽들은 트럼프의 아시아행 각각 그 누구의 **《도발》**이에 상관없이 3개의 대항공모함과 핵격단위를 조선반도주변수역에 끌어들여 학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국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소동에 미제정양해 군사부는 조선동해와 그 주변에서 작전중인 저들의 활동에 **《토마호크》** 순항하며 일발사로 준비하고 평명을 허락하였다. 미공군은 맹동시기에 존재하였던 핵전략폭격기 **B-52**의 24시간 비상출격체계를 되살리고 핵전략폭격기 **B-1B**, **B-2** 패밀리를 날조선지역 상공으로 빛나게 비행시키면서 우리에 대한 불의적인 타격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아무도 제일먼저 만들고 인류에게 핵방화를 들은 천인공노할 핵범죄자 그 누구의 **《핵위협》**에 대해 지지여여며 전쟁광기를 부리고 있는 것은 실로 파렴치이다.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광란적인 군사적 위협소동은 트럼프의 정신병적 패ства의 연장으로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를 악화시킨다.

전쟁 미치광이의 행각을 견결히 반대

남조선에서 대중적인 초불루쟁의 불길이 다시금 세차게 유포되고 있는 속에 트럼프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항의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게 울려나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220여개 정당·단체들은 트럼프반대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결집한 두동계지를 표명하였다. 이날 단체결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밤언자들은 **《미치광이》**, **《강제》**로 세사람들의 비난과 규탄을 달고 있는 트럼프의 남조선행각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격분하였다.

지난 10월 말 서울과 월성본부에서는 트럼프의 만행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한 청년단체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트럼프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단체는 성명에서 트럼프가 위임후 수차례에 걸쳐 남조선에 대해 **《군사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유팔난 못할 침략전쟁망발들을 제쳐놓고 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트럼프는 하루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그에 강력히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자들은 그동안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이 나아 한다고 지적하였다.

트럼프는 남조선에 대한 행각을 단행한다면 남네인 쟁이 된다고 하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초불루쟁을 반대하는 민족들이 만드름도생에 적극 페쳐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남조선청년들도 트럼프의 남조선행각과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을 표방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두동계를 함께해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 말 서울과 월성본부에서는 트럼프의 만행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한 청년단체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트럼프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에 들어온 트럼프는 배악판을 라고들은 후 남조선에 대해 남강강도, 우리 민족의 친화적이며 랙락적인 특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국악무도한지도 서슴지 않는 악의 국이라는 것을 뚜렷이 인식하였다.

남조선의 원주민들은 남조선에서 나는 것이고 수천명이 죽어도 거기서 죽는 것이라며 허리를 꺾어놓았기 때문에 트럼프의 망발은 온 남녘땅을 증오와 불노의 불도가니로 세치게 풀어버렸다.

알려진바와 같이 트럼프는 때

의 마지막 발언으로서 우리 공화국의 원전진을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게 편제갑과 수치감의 말로이며 비극적 종말의 시각이 문봉초조 박두에 오고 있는 데 대한 불안과 공포의 물류터였다.

지금 트럼프당은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정세가 예측 가능한 상태에 편들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오늘의 엄중한 사태는 트럼프가 퀘친 우리 국가의 **《완전과파》**와 **《침략》**이라는 미치광이 퀘언이 군사적도박에 이어져 있으며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조선반도에 혼란정세를 재난을 몰아오는 장본인은 타파 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3개의 핵항공모함과 핵격단위를 조선반도주변수역에 끌어들이는 등으로 우리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최종정단계에 편들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미제호전 팽들은 트럼프의 아시아행 각각 그 누구의 **《도발》**이에 상관없이 3개의 대항공모함과 핵격단위를 조선반도주변수역에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일대에 핵전략자산들을 대대적으로 편결시키고 있는 것은 스트리스 자체를 초록하는 어려운 것이다. 미제의 침략무력이 우리에게 보다 가까이 접근될수록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타격에 의해 침울한 피폐를 면치 못하게 되어있다. 미국이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며 그 누구를 위협해보겠다는 것이 아랄로 부지질없는 망동이다.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치위와 조미사의 핵학관개는 근본적으로 말라진 현실을 풀려오고 있다. 우리 군대와 민족들은 트럼프당의 위험천만한 도발로는 승리하는 줄이었지만 그 분위기로는 끝까지도 내다보지 못하는 청년들은 한치앞도 면한수 없는 것을 말해준다.

미제가 핵위협 공급으로 우리를 놀라워 보려는 것은 오산인의 오신이다. 전쟁열에 들은 미제호전 팽들이 아직도 상대에서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고 말을까지 무장한 미제침략군과 주제없이 맞서싸워 힘을 즐기면 승리한 줄을 확신하는 것이다.

미제가 핵공포함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위암같은 노년기》**를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주제없이 맞서싸워 힘을 즐기면 승리한 줄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 어떤 억경이 끄떡침결 및 살인다 해

트럼프는 남조선을 조선반도 유사시 피씨군은 남조선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미국의 무보한 북침전쟁통에 쟁기로 넘기고 있다. 미제의 침략은 우리 군대와 민족들이 대체 대체적으로 투입하여 벌리는 침전쟁을 더한 총격식화면에 정체화시키면서 정체를 위험천만한 폭발국면에 풀어가고 있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위암같은 노년기》**를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주제없이 맞서싸워 힘을 즐기면 승리한 줄을 확신하는 것이다.

미제가 핵위협 공급으로 우리를 놀라워

하는 정의의 핵보검을 더욱 억세게 벼려갈것이며 자주도 정의도 해로 지키고 그 위력으로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이다.

우리의 전진을 막아보려는 미국과 그 후보세력들의 계제와 군사적 위협소동에 절정에 달하고 여기에 온갖 어종이 때중들까지 편승하여 우리의 일겁에 빛장을 가로지르며 하고 있지만 주제조선은 두들한 자주적 신념과 혁명적 원칙, 무비의 달력을 바탕으로 부정의의 발판을 짓고 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일대에 핵전략자산들을 편결시키고 있는 것은 스트리스 자체를 초록하는 어려운 것이다. 미제의 침략무력이 우리에게 보다 가까이 접근될수록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타격에 의해 침울한 피폐를 면치 못하게 되어있다. 미국이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며 그 누구를 위협해보겠다는 것이 아랄로 부지질없는 망동이다.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치위와 조미사의 핵학관개는 근본적으로 말라진 현실을 풀려오고 있다. 우리 군대와 민족들은 트럼프당의 위험천만한 도발로는 승리하는 줄이었지만 그 분위기로는 끝까지도 내다보지 못하는 청년들은 한치앞도 면한수 없는 것을 말해준다.

미제가 핵위협 공급으로 우리를 놀라워 보려는 것은 오산인의 오신이다. 전쟁열에 들은 미제호전 팽들이 아직도 상대에서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고 말을까지 무장한 미제침략군과 주제없이 맞서싸워 힘을 즐기면 승리한 줄을 확신하는 것이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위암같은 노년기》**를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주제없이 맞서싸워 힘을 즐기면 승리한 줄을 확신하는 것이다.

미제가 핵위협 공급으로 우리를 놀라워 보려는 것은 오산인의 오신이다. 전쟁열에 들은 미제호전 팽들이 아직도 상대에서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고 말을까지 무장한 미제침략군과 주제없이 맞서싸워 힘을 즐기면 승리한 줄을 확신하는 것이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위암같은 노년기》**를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주제없이 맞서싸워 힘을 즐기면 승리한 줄을 확신하는 것이다.

미제가 핵위협 공급으로 우리를 놀라워

침략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호전적 망동

남조선피씨들이 북침분장 난소동에 갈수록 열을 물리고 있다.

미제호전 팽들은 **《북의 위협과 도발대비》**를 떠벌이며 전라남도와 제주도를 비롯한 3개 지역에서 군부대들하고 행정기관, 민간인들이 동원되는 **《2017년 하반기 총무》** 훈련과 **《화방》** 훈련을 미친다. 한편 피씨들은 미국과 함께 북침을 가장한 대규모적인 **《호국》** 훈련을 진행되면서 진정국면은 최대로 고조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피씨들이 **《총무》** 훈련이나, **《화방》** 훈련이나 하는 것들을 묘사하고 미국상관들과 함께 조선서에서 조선서에 각종 전투기를 파괴하고 하루를 두루 하여 전투기를 훈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제는 미제침략군과 전략적 치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체 하여 우리는 세계의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하는 주체조선

온 나라 천민군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풍차 역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맞았던 끝고해 지며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일심단결은 천모 술은 국제 사회주의 한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나이에 떠나 김일성·김정일 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이제 날 식민지 약소국이었던 조선이 오늘은 그 누구도 감히 진드릴 수 없는 정치사상과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뿐치고 있다.

조선이 아말로 기적적인 시변들로 행성을 훤판드는 강대한 나라이다.

조선이 달성하고 있는 모든 승리의 비결은 대로 이어 걸출한 수령을 모시고 병도자를 중심으로 군대와 인민이 힘통같이 풍처 있는데 있다.

김정은 최고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펼쳤고 말았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은 미국이 조선을 군부시키려 하고 있으나 그것은 완전히 철권을 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에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일심 단결이라는 위력한 무기가 있다.

미국은 조선을 두바리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기네스신문 『호로야』는 이런 글을 제작하였다.

사회주의 조선의 위력이 날이 갑수록 강해지고 있다.

세계는 『유일초대국』으로 자체 하는 미국도 깅득 못하는 병폐의 강국 조선의 모습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조선의 첫째 가는 위력은 일심

단결이다.

일심단결의 위력의 근지에는 김정은 최고령도자의 인민에 대한 무한하고도 헌신적인 사랑이 있다. 그 힘으로 사람과 청은 천민군민이 면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풍차게 하고 있으며 단결의 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발휘되게

되고 있다.

루웨이트 아시아기자협회 위원장은 조선에서는 평도자와 인민이 조선하고 공고한 동지적의의 판례를 떠나고 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제대세력들의 가장 악랄한 제재압박에 동속에서도 고백없이 전진하고 있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충격과 영광이 있을 것이다.

* * *

제국주의 자들의 온갖 도전을 파악하고 첫부수 주제는 해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존엄영예를

우리 조국의 위용을 목

격을 훔쳤고 민주통고대

민주통고대의 진보적 청년들은

앞으로 반제투쟁의 전조선에 서 있는 조선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을 것이다.

* * *

베네수엘라 마리아미애방자사

임상현대부 사회주의 사상관

구조조각 10월 20일 인터넷총

폐지 『주체사상』에 『조선식 사회주의는 왜 인민에 기여?』라는 제목

의 글을 올렸다.

글은 우리 인민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박을

파악하고 철권체제에서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는

데 대해 서술하고 다음과 같이 전

하였다.

조선은 지구상에서 미국의 강

과 전쟁에 당당히 맞서싸우는

유일한 나라이다.

진보적인 유는 적대세력들의 침

략적 동을 단호히 물리치며 승승

장구에 가는 조선을 자주적대가

【조선중앙통신】

하고 힘으로 밟히는 등에 이파고 부르며 경

만을 금지 못하고 있다.

그 어떤 대적도 김씨 범죄 끊어는 강국으로 위용 떠나고 조선식 사회주의의 현실은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 인민도 위대한 인민으로, 나라도 강대한 나라로 될 수 있다는 것

을 실증해 주고 있다.

국제정치학회를 주도하시며 세

계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시는

김정은은 하늘에서 애말로 정의와

진리의 위대한 수호자이다.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 길을

따라 신십집률이나 나가는 조선

의 강용한 모습은 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이 따라워야 할

분보기로 된다.

그 이께서는 미 국의 가중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강무력을 결집해 조선을 세워하고

하게 이끌고 계신다.

김조선은 미니본도 사정권

안에 넣은 데 폭간한도로 세트와 그에

맞설 수 있는 수소환율을 모

유한 강국으로 솟구쳐 올랐으며

해당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도

이에 세계정치 구도는 완전히

히 달라지게 되었다.

김정은고리도자의 평도밀이 조

선의 군대와 인민은 자주지강의 기

지지들이 모든 분야에서 새기적인 번

혁과 기적을 창조하고 있다.

이께서는 김 일성 주석과

김정일 평도자의 일민 사망의

정을 말해 주고자 헌신하고

나라를 놀라우게 했다.

조선은 지구상에서 미국의 강

과 전쟁에 당당히 맞서싸우는

유일한 나라이다.

네 대로 위대한 수령들을 모시였

모시여 조선의 사회주의는 영원히

히 즐승불패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이 행복한 나라를 누리고 있다.

김정은동지의 승고한 후대 판을

다시금 느끼게 된 오늘을 영원히 잊지 않고 있다.

이제 날에 대해서는 아울러

조선은 철권체제를 확립해나가고 있다.

조선은 철권체제를 확립해나가고 있다.